

법금용기관 신년인사회

# 新 年 辭

2001. 1. 4

재 정 경 제 부 장관  
진 념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주신 금융기관 기관장들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해  
에 대한 평가와 반성, 그리고 새해에 대한 희망과  
각오를 다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해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선  
대우사태의 여파로 투신사 등의 자금중개기능이 위  
축되면서 금융시장과 산업활동이 큰 타격을 받았습  
니다. 중시는 침체를 계속하는 가운데 일부 벤처기  
업들의 비도덕적인 행태가 문제도 되기도 했습니  
다.

무엇보다도 연말에 이어진 은행간의 합병과 금융  
권의 파열 등은 여기 계시는 금융기관 기관장님들  
에게 시련과 함께 미래를 새롭게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올해 역시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새해 덕담만 하고 지나가기에는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 기관장님들을 모신 이 기회에 서로 마음을 다잡고, 함께 힘을 모으자는 의미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금융이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사실을 항상 견지하시면서 모든 일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경제의 핵심은 돈이 원활히 흐르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자금시장은 돈이 제대로 돌지 않아 경제의 혈액인 금융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는 '동맥경화'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해 정부는 여러 차례 직간접적인 자금시장

대책을 마련하여 보완하고자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결국은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움직여줘야 합니다.

이제는 금융인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하고 이를 토대로 자금이 기업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금융인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파감히 퇴출시키되, 금융기관이 회생할 수 있다고 평가한 기업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햇별이 쟁쟁할 때만 기업을 돕는데 나서고 소나기가 내릴 때는 외면하는 '야속한 우산'이 되어서는 진정한 금융기관으로 도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은행이 앞장서서 자금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저는 새해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잡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제는 진정한 시장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을 정리해주었습니다. 이전에도 금융기관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그때 정부가 나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런 식의 '정부간섭'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금년을 '시장경제시스템 정착의 해'로 삼고 금융부문부터 자율과 책임, 그리고 투명성을 바탕으로 시장기능이 원활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

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금융인부터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라는 끊임없는 자기혁신이 요구됩니다.

우선 부실채권을 자율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또 기업의 회생 기능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정부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정착 등을 통해 부실이 그때그때 처리되는 상시적인 금융·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일선 금융기관들의 자율성과 경영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정부도 같은 맥락에서 필요하다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개혁에 중점을 두

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와 위험관리 능력이 제고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상업적 기관으로서 역동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사고와 관행을 떨치고 완전히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을 지내면서 성공적으로 구조조정 작업을 이끈 잭 웰치는 "외부의 요구가 있기 전에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 기업, 금융 모두 일류가 되려면 남보다 앞서서 자기혁신을 감행해야 합니다. 주변상황에 밀려 변화하는 조직은 이미 경쟁자보다 몇 걸음 뒤쳐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최악의 경우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금융기관 변화의 핵심은 '고객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도 소비자의 취향을 한 발 앞서 읽어내고, 그에 맞추어 조직을 바꾸거나 경영전략을 고쳐야 합니다. 고객없는 금융기관은 퇴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국가 조성된 공적자금 외에 더 이상의 공적자금을 지원하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부실의 책임은 금융기관 스스로 떠안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는 금융기관에도 철저하게 시장원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금융인 여러분!**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을 갖추고 책임과 자율



에 토대를 둔 시장경제시스템의 틀을 만들어 시장  
규율은 정립하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그러나 이  
를 실천하는 것은 금융인 여러분의 몫입니다.

금융인 여러분께서는 다시 태어나는 자세로 금융  
산업의 혁신과 금융시장 여건의 개선에 힘써 주시  
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고생해오신 기관장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  
은 사의를 표합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  
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